

장휘국 교육감 8일 취임...광주교육 어떤 변화 올까

“학업경쟁 없다” 전인교육 “춘치관행 근절” 비리퇴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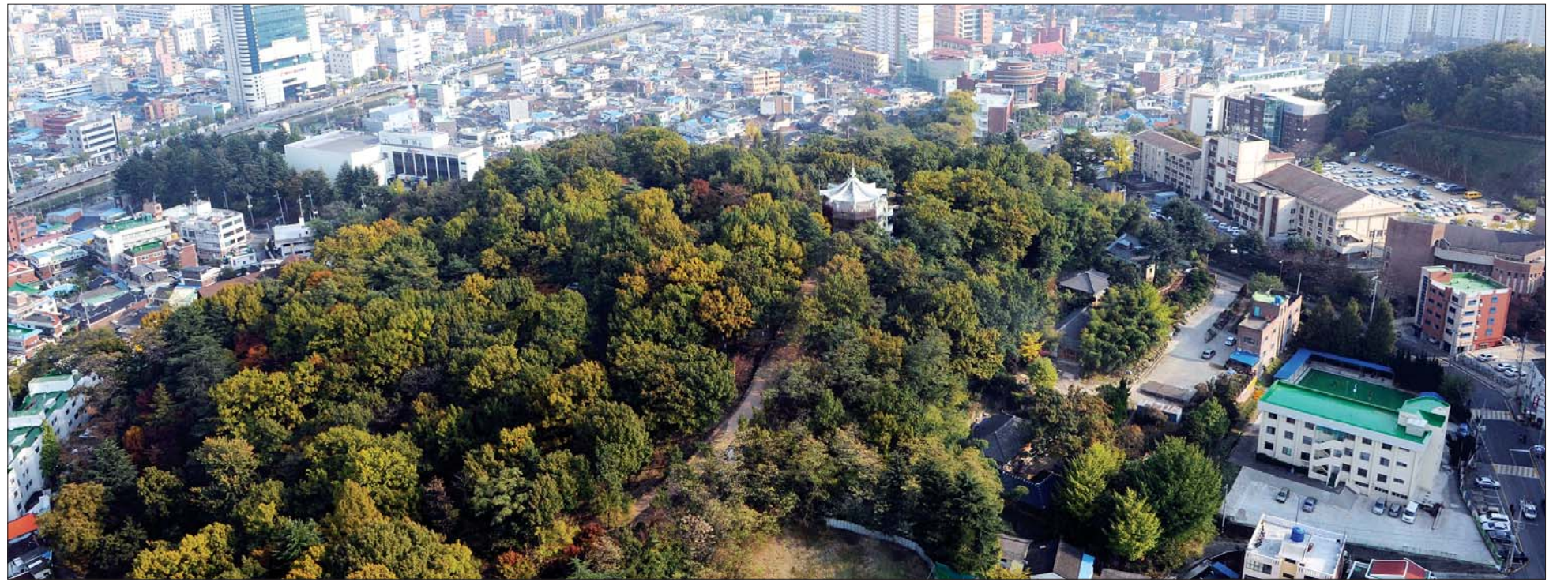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의 취임(8일)을 계기로 광주 교육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전교조 교사에서 광주교육 수장으로 변신한 그는 교육계의 고질적인 교육복지·양극화 해소, 교육비리 척결을 내세워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태다. 장 교육감 당선자는 4일 금호령 생교육관에서 열린 취임준비위 기자회견에서 “학생·학교간 과도한 학업성취도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비리를 키우는 관행을 ‘과감히 깨겠다’고 거듭 강조해 교단에 변혁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의 정책이 교육의 안정·지속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혁신학교’ 교육 변화 예고=

비리교사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키우고, 징계위의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 당선자는 이날 “교사와 관리자, 교사와 학부모 간 춘치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천방안은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 비리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교육감 직통전화 신설 등이다.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교사·학생을 아우르는 인권 메뉴얼도 제작된다. 예컨대,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교권에 도전하는 행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학생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적정한 수준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안정·지속성 약화” 진보교육 우려 시각도

‘혁신학교’는 장 교육감 당선자의 교육철학을 집약한 교육현장이다. 1학년 25명 안팎으로 편성하되, 학생·교사·학부모 3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게 골자다. 학생간 경쟁을 벗어나 협동을 추구하고, 주입식 교육보다 토론식 수업 진행 등을 통해 창의적인 전인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가 녹아있다. 올해 11월부터 초등학교 2개, 중 2개교를 지정·운영하며 2014년까지 초·중·고의 10%까지 확대된다. 무상교육·급식 등 복지정책도 확대·실시된다. 이를 위해 내년 초등학교 전체 전환형 무상급식비(136억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121억원) 초고 학습준비를 지원금(5억 7000만원)이 예산에 증액·추가됐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은 2013년 전면 시행 목표를 추진된다. ◇비리교사 퇴출·학생 인권강화= 교육비리에 대한 송방방이 징계로 그동안 비리를 키워왔다고 판단,

대한 우려의 시각 = 장 교육감 당선자가 표방한 평등 교육, 강제적 보충·자율학습제 등은 교육현실과 간극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적으로 진학과 장래가 결정되는 엄연한 현실에서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장 당선자의 광주 외고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처리방식도 교육계의 관심사다. 외고나 특목고의 수월성 교육에 반대해온 그는 그동안 수차례 광주 외고설립의 부당성을 언급했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과학부에 이미 외교 지정 협의를 요청한 상태로, 취임 후 외교 설립을 재검토할 경우 교육계의 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장 교육감 당선자는 “그동안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 관행을 고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 가족들이 협력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가 오는 2025년까지 도시 곳곳에 공원녹지 13.37km를 추가 확보, 공원녹지율을 7.00%까지 늘릴 방침이다. 구도심의 녹지거점인 광주 사직공원 전경.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공원녹지율 7%까지 높인다

2025년까지...도심 소공원 등 63곳 새로 조성, 1인당 공원면적 16.00㎡로

공원녹지기본계획 마련

오는 2025년을 목표로 광주의 공원과 녹지를 어떤 방향과 기초를 갖고 조성하고 유지·보존할 것인지를 담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마련됐다. 도시 내 공원·녹지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만큼 이 계획은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고 있다. 이 계획은 공원·녹지와 관련해 2025년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공원녹지 종합배치구상, 공원 및 녹지 조성 및 보존 방향, 추가 조성 및 배치 장소나 면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구하는 문화도시=광주의 공원녹지 정책 근간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Green-Culture City Gwangju)’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공원녹지의 보존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조성 ▲문화와 함께 하는 품위 있는 녹지 조성 ▲삶의 윤택하게 하는 녹지 조성 ▲문화와 연계하는 경관 창출 ▲시민과 함께하는 녹지 조성 등의 기본방향이 정해졌다. ◇공원녹지비율 7%로 향상=지난해 말 공원녹지율(공원녹지면적/행정구역면적)은 4.33%(21.72km/501.25km)에 불과하지만 15년 동안 13.37km의 면적의 공원과 녹지를 확보해 공원녹지율을 7.0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계획이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신규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원녹지 필수면적 확보,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녹피울(녹피면적/행정구역면적) 역시 기존 35.63%에서 40.00%로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공원면적은 현재 13.08㎡에서 16.00㎡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이나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의 1인당 공원면적 20~40㎡보다는 작지만, 대전 14.01㎡(2020년 목표) 등보다는 크다. ◇공원 63개소 도심 곳곳에 추가 배치=지정된 지 오래된 노후공원과 장기간 조성이 미뤄지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정비대상공원은 근린공원 74곳, 어린이공원 255곳, 소공원 6곳, 주제공원 20곳 등 모두 355곳이다. 장기간 미집행된 근린공원

15곳(2.94km), 어린이공원 21곳(0.04km), 체육공원 1곳(0.30km) 등 37곳(3.28km) 등에 대해서는 지정연도와 지역별 1인당 공원면적에 의한 지역마다 가점을 주고 이를 근거로 체계적으로 공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공원이 없었던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소공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63곳의 공원이나 유취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공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 북구 광주교도소 이전부지를 5·18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황룡강·영산강 주변에 수변공원과 도시생태공

원을 조성하면 광주의 공원 부지는 기존 18.92km에서 9.10km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녹지 보전·확충·복원·기르수 등 구분 추진 =녹지보전대상으로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 영산강 대상공원 등은 물론 생태자원도 삼갈지 않는 용진산, 야생동물 서식 산림자원인 원각산·송학산·금당산·무등산, 영산강·황룡강·광주천·공영정천 등이 선정됐다. 또 이번 계획에서는 최초로 도시 내 바람길 확보를 위해 광주천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인도 폭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기 미집행 시설녹지 14곳(0.92km)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선문택지개발사업·어등산 테마파크개발사업·진곡산단단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75곳(1.19km)의 녹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학교 숲 239곳(7.44km) 조성, 공공기관 쉼터 및 옥상녹화 33곳(0.44km)도 계획에 포함됐다. 도로 개설로 산림이 단절된 북동산~사량산 단절구간, 용진산~감도산 단절구간 등 모두 8곳에 육교형 생태통로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시아문화전당지구 및 상무지구를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해 수백·화단·담장녹화·벽면녹화·옥상녹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담장 허물기 나무심기(106곳), 조각숲 꾸미기(43곳), 구조물 녹화(103곳) 등도 추진된다. 특히 수십 년 전 복개된 용봉천과 동계천의 하천 복원도 계획에 들어 있어 현실화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계획은 이달 광주시의회 의결청취, 시민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창조도시 마스터플랜 세운다

토목·조경·건축 등 분야별 팀 구성...용역 심의

광주시가 전반적인 도시 디자인의 기초와 방향,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기존 용역과는 달리 전체 책임자를 정하고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와 직원 등으로 팀을 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광주시는 4일 “3억4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민주·인권·평화의 인본디자인 창조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5일 오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용역에는 디자인 현황 조사분석, 디자인 비전 전략, 마스터플랜 범위, 분야별 추진 전략 및 가이드라인이 담기게 된다. 토목·조경·건축·기초 시설물·옥외광고물·

시각 매체 등으로 분야를 나눠 시범 선도사업 및 분야별 디자인사업 등도 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마스터플랜의 범위가 기존 경관·건축주책·공원녹지 계획이나 옥외광고물 지침 등과의 겹쳐 중복을 피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지 여부가 용역 과제 수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날 용역과제심의위에서는 또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신청분야 발전전략 및 신청서 작성 용역(1억5000만원)’도 안건으로 논의된다. 유네스코는 현재 문학·공예·음악·디자인·미디어아트·음악·영화 등 7개 분야 25개 도시를 지정할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현지 학생들과 수업하며 생생영어 배워요 새롭다, 즐겁다, 뉴질랜드 어학연수

광주일보가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뉴질랜드교육문화원(NZLES:New Zealand Life Education Service, www.nzles.com)과 공동으로 현지학생들과 수업을 받는 정통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 특징 1** 현지학교 매일 수업참여
기존 ‘해외외형’ 연수가 아닌, 새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학교 교실에서 연수기간 내내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영어실력을 키운다. 연수생의 어학수준에 맞게 학년을 배치하며 오전엔 별도 영어교육도 실시한다.
 - 특징 2** 학생 집에서 매일 홈스테이
연수생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현지 학생들의 집을 선별해 연수기간 내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갖는다. 교사가 주 1회 가정방문해 학생의 생활상황도 체크한다.
 - 특징 3** 연수생 이전에 만전
홈스테이 전담 선생님이 있어 연수생들이 현지 생활에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24시간 학생보호 시스템을 운영한다. 현지 학교 교직원과 NZLES 교직원들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연수생들의 학교생활을 밀착 관리한다.
- 연수기간 | 2011년 1월 30일 ~ 2월 26일
연수지역 | 오클랜드 북부 Whangaparaoa
연수학교 | StanmoreBay School (www.stanmore.school.nz)
GulfHarbourSchool (www.gulpharbour.school.nz)
연수대상 | 초등 4~6학년, 중학생 1~3학년
연수인원 | 선착순 60명(심층면접후 실력고려 학년 배치)
신청마감 | 2010년 12월 10일
문의 | 062-220-0641
주최 | 광주일보사 | 주관 | NZLES·AK WORLDLINE